

가족식사 및 가족기능이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Family Mealtime and Family Functioning on Early Adolescents' School Adaptation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이 현 아**

연구교수 최 인 숙***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at Seoul National Univ.

Research Professor : Lee, Hyun-Ah

Research Professor : Choi, In-Su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mily mealtime and family functioning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communication with father and mother) on early adolescent school adaptation. Data of 3,145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Survey on the Family Values and Lives among Adolescents(2010) condu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 were us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of having breakfast and dinner with father and having breakfast with mother, family cohesion, and communication with father according to gender. Second,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household economic status,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adolescents' gender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ving breakfast with father and having dinner with mother in family mealtime frequency, and all the variables of family functioning predicted adolescents' school adaptation. Finally, economic status, having dinner with mother, family cohesion, and communication with father and mother were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chool adaptation for both boys and girls. Mother's education and having breakfast with father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or only boys, while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family adaptabilit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or only girls. These findings could provide grounds for making family and education policy.

▲주요어(Key Words) : 가족식사(family mealtime), 가족응집(family cohesion), 가족적응(family adaptability), 부모와의 의사소통 (communication with parents), 학교적응(school adaptation)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413-350-20110028).

** 주 저 자 : 이현아 (E-mail : leehyun@snu.ac.kr)

*** 교신저자 : 최인숙 (E-mail : aneschoi@gmail.com)

I. 서론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면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을 단순히 문제학생들의 비행이나 학교부적응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경쟁이 강조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어른들은 일중심, 아이들은 학업중심으로 치달은 결과,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이라는 무서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으로는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신고조사체계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인터넷중독 등 유해요인대책 등의 7대 과제가 포함되어, 직접적인 대책 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까지 제안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2).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 인성교육 실천과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들과 차별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시작한 '밥상머리교육' 캠페인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대화함으로써 가족간 애정을 나누고 기본적인 인성을 키울 수 있다고 봄으로써(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2), 청소년의 발달 환경으로서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은 삶의 안식처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애정과 보호를 받으며 기본적인 신체, 사회성, 인지 발달을 이루고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사회성을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 할 때,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식사시간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식사는 일상적인 행위로 한 가족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이 형성되고, 그 속에서 가족간 애정과 유대를 나누며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하고, 가정내에서 획득된 소속감과 안정감은 이후 다른 사회적 관계에 까지 확장되고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족식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본 연구는 실제 가족식사를 많이 하는 것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가족식사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가족환경 변인으로써 가족기능의 영향력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순환모델에 의하면, 가족기능은 가족원간의 응집성, 변화에 대처하는 적응력,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으로 나타난다.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 고유의 기능적 특성은 건강한 가족의 질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으로써 가족의 역할

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가족식사와 가족기능의 효과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는 가족식사와 가족기능이 가정의 건강성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가정은 가족원이 서로 시간을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면서 공동체로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환경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특성을 지닌다(Curran, 1983; Olson, 2003; Stinnett & Sauer, 1971; 조희금 등, 2010에서 재인용). 이러한 건강한 가정의 특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식사를 가정건강성의 양적인 지표로 보고, 가족기능을 가정건강성의 질적인 지표로 간주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가정건강성의 양적 특성지표로서의 가족식사와 질적 특성지표로서의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환경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으로써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확인하고,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을 위한 가족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식사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청소년 시기는 신체 및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며 청소년의 건강한 적응을 위하여 당사자인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도 이러한 자녀의 변화에 적응해나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가족의 관점에서 가족역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환기 가운데 하나가 자녀가 청소년이 되는 시기이며(Steinberg, 1990), 이 때 가족환경은 청소년의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발달적으로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는 청소년이 초등학교에서 벗어나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일찍부터 학업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시기이다. 학교생활 이외에도 학원 수강 등의 다양한 과외활동과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독립적인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의 생활패턴 때문에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이나 자녀가 부모와 함께 마주하는 시간이 감소하지만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서 부모를 포함한 가족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중요하다(Choi, 2012). 최근에는 청소년기에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부모와 규칙적으로 함께 하는 식사시간이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는 시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가족식사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과의 관련성이 입증되면서 가족식사의 기능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가족식사는 특히 가족의례(family ritual)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족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활동이나 의례는 여러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며 함께 함으로써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 이러한 가족의 일상과 의례는 가족생활의 문화적, 생태학적 맥락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가족생활이 가족원의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Fiese et al., 2002).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가족식은 식탁에서 가족구성원이 단순히 식사를 하는 반복된 행위에서 시작되므로 일상적 활동으로 보이지만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구성원간의 대화나 애정이 담긴 의미있는 행동은 상징적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의례로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식사를 나누는 단순한 행위로 이루어져있지만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 내에서 학습된 다양한 행동패턴을 모델링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시키고 특히 자녀의 가족으로서의 정체감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mpan et al., 2002).

실제로 가족식사와 자녀의 적응과의 관련성은 많은 해외의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어왔다. 가족식사 빈도는 자녀의 영양섭취(Videon & Manning, 2003), 도덕성 발달과 언어발달(Snow & Beals, 2006)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자녀의 심리적 문제(Eisenberg et al., 2004)나 약물중독(Eisenberg et al., 2008; Fulkerson et al., 2006)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식사 시간에 나누는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신건강(Fiese et al., 2006)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가족식사와 자녀의 발달 및 적응과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가족식사, 다시 말해 자녀와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함께하는 식사가 부모-자녀간의 공감적 의사소통, 아동의 자아정체성, 가족정체성을 강화하는 규칙적이고 구조화된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Fiese et al., 2006).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식사의 긍정적 영향이 입증되어 왔고, 사회적으로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가족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가족식사와 아동청소년의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환경 변인으로써 가족식사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가족순환모델(Barnes & Olson, 1985; Olson, Russell, & Sprenkle, 1979, 1983)에 따르면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족환경 변인은 가족기능이며 이것은 가족응집과 가족적응 및 가족 간, 특히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가족응집(Olson et al., 1979)이란 가족구성원이 서로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감과 가족체계안에서 각 구성원이 경험하는 자율성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가족응집이란 가족간에 정서적 유대감이 강하며 동시에 가족원에게 적절한 수준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균형이 잡힌 상태를 가리킨다. 두 번째로 가족적응(Olson et al., 1979)은 가족을 둘러싼 상황이나 발달적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가족 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즉, 가족체계가 변화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적응적인 체계로 기능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가족순환모델에서 제시하는 최적의 가족기능은 가족응집과 가족적응이 균형을 맞추어 각 차원에서 최적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Barnes & Olson, 1985). 가족의 기능은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가족이 처한 상황,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일시적으로 응집이나 적응에서 극단적인 수준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 모델에서 가족적응과 가족응집 수준이 극단적인 수준, 다시 말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인 경우에 역기능적인 가족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는 가족치료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가정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며, 선행연구(Farrell & Barnes, 1993)에 따르면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가족응집과 가족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이 잘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가족응집 및 가족적응과 청소년의 적응 또는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고찰한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어왔는데,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먼저 가족응집 변인만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로움(Johnson, Lavoie, & Mahoney, 2001), 스트레스나 우울(Hovey & King, 1996)과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과 가족적응을 함께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두 변인 모두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Gauze et al., 1996)과 정적 관련이 있었고 청소년 비행(Min, 1992)과는 부적 관련이 있었다. 이와 달리 가족응집 및 가족적응과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Byun, 2005)에서는 중학교 2, 3학년 남학생의 학업성적과는 두 변인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자존감(Kawash & Kozeluk, 1990; Cashwell, 1995)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Kawash & Kozeluk, 1990)에서는 가족응집만이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ashwell, 1995)에서는 가족적응만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시기인 중학생 시기에 가족응집과 가족적응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기능에서 중요한 요소는 의사소통이다. 가족순환모델에서 의사소통은 가족의 변화하는 기호, 요구, 감정을 공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제이다(Barnes & Olson, 1985).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자신의 신변이나

감정에 대한 정보의 교환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대화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기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이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응집과 가족적응과 함께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세 가지 변인이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함께 부모의 양육방식, 가족관계 요인 등이 청소년의 적응 또는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학업성취(Byun, 2005; Masselam, Marcus, & Stunkard, 1990), 자존감(Brage & Meredith, 1994; Kim, 2001)과 정적 관련이 있고, 우울(Brage & Meredith, 1994; Kim, & An, 2008), 비행(Kafka & London, 1991; Kim & An, 2008; Min, 1992)과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적응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응집 및 가족적응을 포함한 가족기능이 초기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는 미흡하므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초기 청소년과 부모 및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환경 변인인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가족식사 및 가족기능이 초기 청소년인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성이 가족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Pinsof and Lebow, 2005) 부모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가족식사 및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중학생의 가족식사 및 가족기능(가족응집, 가족적응,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중학생의 가족식사 및 가족기능(가족응집, 가족적응,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중학생의 가족식사 및 가족기능(가족응집, 가족적응,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가족의식 가정생활 실태조사(2010) 자료 가운데 중학생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145)

Classification		Frequency(%)
Gender	Male	1585(50.4)
	Female	1560(49.6)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1)	1257(42.7)
	Bachelor's degree or more	1688(57.3)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1)	1540(51.4)
	Bachelor's degree or more (=0)	1372(45.8)
Mother's employment status	Employed	2002(66.8)
	Unemployed	957(31.9)
Household's economical status	1(Very low)	19(0.6)
	2~3	349(11.8)
	4(Average)	1206(40.2)
	5~6	1274(43.0)
	7(Very high)	114(3.8)

대상으로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0년 확률표집 방식으로 추출된 전국의 중고교생과 그 부모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1,2,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3145명(남학생 1585명, 여학생 156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 연구도구

1) 가족식사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가족식사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가운데 한명이 함께 하는 가족식사를 기준으로 부아침식사, 부저녁식사, 모아침식사, 모저녁식사로 구분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는 6개 구간(1=거의 하지 않는다, 2=두세달에 한번, 3=한달에 1~2회, 4=1주일에 1~2회, 5=1주일에 3~4회, 6=거의 매일한다)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당 가족식사횟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즉, '거의 하지 않는다'는 0점, '두세달에 한번'은 0.15점, '한달에 1~2회'는 0.375점, '1주일에 1~2회'는 1.5점, '1주일에 3~4회'는 3.5점, '거의 매일한다'는 7점으로 환산하여 연속변수로 전환하였다.

2) 가족응집 및 가족적응

가족응집 및 가족적응은 Olson 등(1985)이 개발한 가족적응과 가족응집 평가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FACES-III)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한 Kim(1989)의 척도에 기초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한 척도가 이용되었다(이종원·오승근·김은정, 2010). 가족응집 문항은 개인의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족원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우리 가족은 서로 강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기꺼이 도와준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적응은 가족을 둘러싼 상황이나 발달적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가족 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우리집에서는 별책을 정할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한다', '우리집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지도자가 바뀐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각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가족응집 .89, 가족적응 .67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평가하기 위하여 Olson and Barnes가 개발한 부모-청소년자녀 의사소통(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AC) 척도 가운데 개방형 의사소통에 관한 10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부하량이 높은 5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감정과 정보교환이 솔직하고 자유로우며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간의 이해와 만족도가 높은 의사소통이며(이종원 등, 2010), 예를 들어 나는 무슨 일이든 부모님께 모두 말 썬드릴 수 있다', '나의 소신을 부모님과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신뢰도는 부의사소통, 모의사소통 문항의 Cronbach's α 값이 각각 .84, .82로 나타났다.

4) 청소년의 학교적응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Lee(2006)와 Lee(2009)의 학교생활적응 척도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교사와의 관계, 학교친구와의 관계, 학교공부 몰입도의 세가지 영역에서의 적응정도를 평가하며,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예를 들어 '나는 학교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우리반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다', '나는 수업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영역별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각각 .90, .83, .80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 검정,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중학생의 가족식사 및 가족기능(가족응집, 가족적응,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의 전반적인 경향

우리나라 중학생의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식사 횟수, 가족응집, 가족적응,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리나라 중학생이 지각한 학교적응 수준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가족응집과 부모와의 의사소통도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가족적응 수준은 평균점수가 보통 미만으로 나타나 가족응집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식사횟수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아침식사는 주당 평균 2.68회, 어머니와 함께 하는 아침식사는 주당 평균 3.28회, 아버지와 함께 하는 저녁식사는 주당 평균 3.47회, 어머니와 함께 하는 저녁식사는 주당 평균 4.35회로 나타나, 아침 보다는 저녁,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식사횟수가 더 많았다. 특히 어머니와의 저녁식사횟수는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Total (N=3,145)		Boys(N=1,585)		Girls(N=1,560)		t
	M	SD	M	SD	M	SD	
School adaptation	3.08	0.65	3.05	0.69	3.10	0.60	-1.80
Breakfast with father	2.68	2.90	2.88	2.94	2.47	2.85	4.11***
Breakfast with mother	3.28	3.04	3.49	3.03	3.06	3.04	3.66***
Dinner with father	3.47	2.82	3.66	2.81	3.28	2.81	3.67***
Dinner with mother	4.35	2.85	4.42	2.81	4.28	2.89	.90
Family cohesion	3.68	0.80	3.72	0.78	3.64	0.81	2.69**
Family adaptability	2.00	0.55	1.99	0.58	2.01	0.53	-.85
Communication with father	3.07	.50	3.10	.52	3.05	.48	2.87**
Communication with mother	3.18	.49	3.18	.51	3.18	.48	-.09

** $p < .01$, *** $p < .001$

Table 3. Intercorrelations of Variables by Gender

Variables	1		2		3		4		5		6		7		8		9		
	boys	girls	boys	girls	boys	girls	boys	girls	boys	girls	boys	girls	boys	girls	boys	girls	boys	girls	
1.	1	.12***	.12***	.14***	.10***	.11***	.12***	.16***	.37***	.37***	.25***	.25***	.28***	.18***	.26***	.18***			
2.	.12***	1	.61***	.61***	.47***	.45***	.32***	.29***	.21***	.24***	.12***	.12***	.15***	.13***	.12***	.06*			
3.	.11***	.60***	1	.32***	.31***	.49***	.45***	.19***	.23***	.11***	.11***	.11***	.07*	.11***	.05*				
4.	.10***	.46***	.31***	1	.55***	.58***	.21***	.30***	.12***	.12***	.20***	.12***	.12***	.15***	.07**				
5.	.13***	.30***	.47***	.57***	1	.22***	.27***	.10***	.11***	.11***	.07**	.12***	.08**						
6.	.36***	.23***	.21***	.25***	.24***	1	.49***	.46***	.39***	.33***	.36***	.29***							
7.	.25***	.12***	.11***	.12***	.10***	.47***	1	.39***	.35***	.37***	.31***								
8.	.23***	.14***	.09***	.16***	.10***	.36***	.37***	1	.89***	.81***									
9.	.22***	.09***	.08***	.11***	.10***	.32***	.34***	.85***	1										

1. School adaptation, 2. Breakfast with father, 3. Breakfast with mother, 4. Dinner with father, 5. Dinner with mother, 6. Family cohesion, 7. Family adaptability, 8. Communication with father, 9. Communication with mother

Coefficients in the left side of the table are for total students.

* $p < .05$, ** $p < .01$, *** $p < .001$

4회 이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라 각 변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아침식사($t=4.11, p<.001$)와 저녁식사($t=3.67, p<.001$), 어머니와 함께 하는 아침식사($t=3.66, p<.001$)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t=2.69, p<.01$) 수준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남학생이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t=2.87, p<.01$) 수준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식사 및 가족기능 변수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아침식사 및 저녁식사, 가족응집, 가족적응, 아버지와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모두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가족식사의 횟수가 많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가족응집수준과 가족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남학생, 여학생 모두 학교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중학생의 가족식사 및 가족기능(가족응집, 가족적응,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중학생의 가족식사 및 가족기능(가족응집, 가족적응,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배경 변인을 통제하고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배경 변인(부모학력, 경제적수준, 어머니 취업여부, 성별)을 투입하였다. 이어서 가족식사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2단계에서 가족식사 변인으로 아버지와 아침식사 및 저녁식사, 어머니와의 아침식사 및 저녁식사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가족기능변인인 가족응집, 가족적응, 아버지와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투입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1.002~3.884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변인을 모두 포함한 최종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18%였다($F=49.09, df=2,819, p<.001$). 사회인구학적배경 변인으로 구성된 1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였으며, 2단계에서 가족식사의 설명력은 2% 유의미하게

Table 4. Standardized Hierarchical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otal Participants

variables	School adaptation (N=3,145)				
	B	β	R ²	ΔR^2	F
Father's education	-.01	-.01			
Mother's education	-.03	-.02			
1 Household economic status	.08	.14***	.03		16.18***
Mother's employment status	-.08	-.06**			
Adolescents' gender	.07	.05**			
Breakfast with father	.01	.05*			
Breakfast with mother	.00	.02	.05	.02	14.75***
Dinner with father	.00	.01			
Dinner with mother	.02	.09***			
Family cohesion	.12	.15***			
Family adaptability	.06	.05*	.18	.13	49.09***
Communication with father	.09	.12***			
Communication with mother	.12	.16***			

* $p < .05$, ** $p < .01$, *** $p < .001$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가족기능의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13%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가운데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취업,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여학생의 경우에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가족식사에서는 아버지와의 아침식사 횟수와 어머니와의 저녁식사 횟수가 학교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 아버지와의 아침식사 횟수와 어머니와의 저녁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가족기능 변인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beta=.16, p<.001$), 가족응집($\beta=.15, p<.001$), 아버지와의 의사소통($\beta=.12, p<.001$), 가족적응($\beta=.05, p<.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이것은 가족응집

수준과 가족적응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중학생이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성별에 따라 중학생의 가족식사 및 가족기능(가족응집, 가족적응,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자녀간의 가족식사 또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가족식사 및 가족기능(가족응집, 가족적응,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Table 5. Standardized Hierarchical Regression Coefficients for Boys and Girls

variables		School adaptation among boys(N=1,585)				
		B	β	R ²	ΔR^2	F
1	Father's education	.01	.01	.03		10.61***
	Mother's education	-.11	-.08*			
	Household economic status	.08	.13***			
	Mother's employment status	-.06	-.04			
2	Breakfast with father	.02	.08*	.04	.01	7.85***
	Breakfast with mother	-.00	-.01			
	Dinner with father	.00	.00			
	Dinner with mother	.02	.07*			
3	Family cohesion	.11	.13***	.20	.16	28.98***
	Family adaptibility	.04	.03			
	Communication with father	.12	.15**			
	Communication with mother	.15	.18***			
variables		School adaptation among girls(N=1,560)				
		B	β	R ²	ΔR^2	F
1	Father's education	-.03	-.02	.03		10.70***
	Mother's education	.04	.03			
	Household economic status	.08	.15***			
	Mother's employment status	-.10	-.08**			
2	Breakfast with father	.00	.02	.05	.02	9.85***
	Breakfast with mother	.01	.06			
	Dinner with father	.00	.00			
	Dinner with mother	.02	.11**			
3	Family cohesion	.13	.17***	.18	.13	25.76***
	Family adaptibility	.08	.07*			
	Communication with father	.06	.09*			
	Communication with mother	.09	.14**			

* $p < .05$, ** $p < .01$, *** $p < .001$

그 결과 <Table 5>와 같이 남학생, 여학생 집단 모두 사회인구학적배경 변인, 가족식사, 가족기능이 투입된 최종회귀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20%, 18%로 나타났다($F=28.98$, $df=1,388$, $p<.001$; $F=25.76$, $df=1,430$, $p<.001$). 먼저 남학생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배경 변인 가운데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학생의 학교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식사 변인 가운데 아버지와의 아침식사, 어머니와의 저녁식사 횟수가, 가족기능 변인 가운데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beta=.18$, $p<.001$), 아버지와의 의사소통($\beta=.15$, $p<.01$), 가족응집($\beta=.13$, $p<.001$) 순으로 남학생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와의 아침식사 횟수, 어머니와의 저녁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남학생이 학교적응을 잘 하며,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남학생이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학생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은 사회인구학적배경 변인 가운데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어머니의 취업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에 여학생이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식사 변인 가운데 어머니와의 저녁식사 횟수만이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저녁식사를 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여학생이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기능 변인은 모두 여학생의 학교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응집($\beta=.17$, $p<.001$), 어머니와의 의사소통($\beta=.14$, $p<.01$), 아버지와의 의사소통($\beta=.09$, $p<.05$), 가족적응($\beta=.07$, $p<.05$) 순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족식사 및 가족기능의 영향을 살펴보고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 부모와의 의사소통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학교적응 또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 중학생의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은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또래나 교사에 대한 태도, 학업에 대한 몰입을 나타내는 학교적응 수준도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가족식사횟수는 주당 평균 3~4회 정도로 아침식사 보다는 저녁식사 횟수가

더 많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식사횟수가 더 높았다.

둘째, 전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사회인구학적배경 요인 가운데 가정의 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취업, 성별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학업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Oh & Moon, 2006)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과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 부적응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쏟을 시간이 부족하여 취업모 자녀의 학업유능성이나 학업성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선행연구(Kim, 2001; Crouter, MacDermind, Pery-Jenkins, 1990)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 결과 여학생일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서의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에 여학생의 우울 등 내재적 행동문제 수준이 높고 학교적응 수준도 남학생보다 낮다는 선행연구(Lee & Kim, 2011)가 있는 반면에 중학교 여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이 남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Lee, 2013)도 있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와 영향요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학교상황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추후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는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을 경우에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인 경우에 여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기 청소년기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학력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여학생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관계적인 친밀감을 중시하는 여학생에게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공유시간의 부족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가족식은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식사에서는 저녁식사의 횟수가 많을수록 중학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아버지와 하는 식사에서는 아침식사의 횟수가 많을수록 중학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적응과 정적 관련이 있으며, 약물중독 등의 행동문제와의 부적 관련성을 밝힌 해외의 선행연구(CASA, 2007; Eisenberg et al., 2004; Eisenberg et al., 2008; Fulkeron et al., 2006)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부모와의 가족식사 중 아버지와의 아침식사와 어머니와의 저녁식사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근로문화가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아버지들이 일찍 귀가하여 자녀와 함께 식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아버지와의 아침식사가 특히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침식사시간은 아버지가 자녀를 마주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아침식사를 통한 규칙적인 가족의례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저녁식사가 어렵다면 아침식사라도 함께 하는 것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을 위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어머니와의 저녁식사가 유의한 영향변수로 드러난 결과는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전히 어머니가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자녀와 함께 먹는 것이 보편적인 생활패턴이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저녁식사횟수가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교적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라든가 저녁식사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정시에 퇴근하여 저녁식사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때,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사라질 것이다.

한편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족식사의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남학생은 아버지와의 아침식사와 어머니와의 저녁식사가 모두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이었으나 여학생은 어머니와의 저녁식사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차는 동성부모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남학생에게 있어 아버지와의 아침식사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자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일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아버지의 생활패턴 속에서 그나마 자녀와 아침식사라도 함께 함으로써 아버지 역할을 보여줄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와의 저녁식사가 유의한 변수로 드러난 것 또한 동성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가족기능 변인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컸으며, 가족기능 변인 가운데 전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족응집, 어머니와의 의사소

통,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가족적응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응집과 가족적응,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가족 구성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족순환모델(Olson et al., 1979, 1983)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응집과 가족적응 모두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가족응집 및 가족적응과 청소년의 적응과의 관련성을 입증한 선행연구(Cashwell, 1995; Gauze et al., 1996)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간의 유대감이 강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족일수록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며 이러한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가족구성원인 자녀가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학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와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녀가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학습성취나 자존감 등 적응과의 관련성을 보여준 선행연구(Brage & Meredith, 1994; Byun, 2005; Kim, 2001; Masselam et al., 199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이한 것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전히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 중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고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경우를 건강하게 기능하는 가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기능하는 가족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도 좋지만, 더 나아가 학교에서의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도 긍정적이고, 수업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성장 환경으로서 가족의 건강성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을 위한 가족 지원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족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연구결과에서도 지적한 바, 가족식사는 일상적이고 규칙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주요한 가족의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위이다. 가족식사를 통해서 형성된 소속감과 안정감은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과급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시간을 확보해주는 방안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근원적인 해결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캠페인이 민간부문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자녀들에 대해서도 학원시간 규제 등을 통해 최소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이현아, 2012).

또한 본 연구는 가족순환모델에 근거하여 가족간 유대감이 강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가족원간 소통이 원활한 가족을 기능적으로 건강한 가족이라 보고 이러한 가족기능의 건강성이 자녀의 학교적응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녀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가족의 건강성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은 가족이 기능적으로 건강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함을 시사한다. 가족이 유대감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가족이 변화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가족이 서로 개방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일인 것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기본적인 가족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일차적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부모교육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으로써 가족의 역할에 주목하고, 특히 가족식사와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족식사변수를 단순히 횡수로 분석하였다는 점, 그리고 부모와의 식사가 아버지와의 식사, 어머니와의 식사로 분리하여 조사되어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함께 하는 식사를 분석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가족식사의 설명력에 제한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이 모두 함께 하는 가족식사의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의 고유한 문화나 전통,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등 질적인 측면이 반영된 가족식사분위기에 대한 연구로 보다 심층적인 가족식사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관계부처합동(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김영희(2001).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2012). 밥상머리교육 학부 모용 길라잡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이종원 · 오승근 · 김은정(2010). 세대 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전망 3 : 가족과 가정생활에 관한 의식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이현아(2012). 가정내 인성교육 회복을 위한 가정과 부모의

역할 지원 방안,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제1차 학술대회 자료집 49-85.
 조희금 · 김정신 · 정민자 · 송혜림 · 이승미 · 성미애 · 이현아 공저(2010). 건강가정론 2판, 서울: 신정.
 Barnes, H. L., & Olson, D. 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2), 438-447.
 Brage, D., & Meredith, W.(1994). A causal model of adolescent depress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128, 455-468.
 Byun, Y. I.(2005).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veness,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3(2), 89-113.
 CASA.(2007). *The importance of family dinners III*. N.Y.: Columbia University.
 Cashwell, C. S.(1995). Family functioning and self-esteem of middle-school students: A matter of perspective?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34, 83-91.
 Choi, I. S.(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peers, and teacher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 An examin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resilience and gender differences. *Ewh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3(3), 105-129.
 Compan, E., Moreno, J., Ruiz, M. T., & Pascual, E.(2002). Doing things together: adolescent health and family ritual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6(2), 89-94.
 Crouter, A. C., MacDermid, S. M., & McHale, S. M., & Perry-Jenkins, M.(1990). Parenting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in dual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49-657.
 Curran D.(1983). Traits of healthy family, Windton Press.
 DuJohnson, H. D., Lavoie, J. C., & Mahoney, M.(2001). Interparental conflict and family cohesion: Predictors of loneliness, social anxiety, and social avoidance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16(3), 304-318.
 Eisenberg, M., Neumark-Sztainer, D., Fulkerson, J. A., & Story, M.(2008). Family meals and substance use: Is there a long-term protective associa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3(2), 151-156.

- Eisenberg, M., Olson, R., Neumark-Sztainer, D., Story, M., & Bearinger, L.(2004). Correlations between family meals and psychosoci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Archives of Pediatric and Adolescent Medicine*, 158(8), 792-796.
- Farrell, M. P., & Barnes, G. M.(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1), 119-132.
- Fiese, B. H., Folkey, K. P., & Spagnola, M.(2006). Routine and ritual elements in family mealtimes: Contexts for child wellbeing and family identity, *New Direction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11, 67-90.
- Fiese, B. H., Tomcho, T., Douglas, M., Josephs, K., Poltrock, S., & Bakerr, T.(2002). Fifty years of research on naturally occurring rituals: Cause for celebr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 381-390.
- Fulkerson, J. A., Story, M., Mellin, A., Leffert, N., Neumark-Sztainer, D. & French, S. A.(2006). Family dinner meal frequency and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with developmental asserts and high-risk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9(3), 337-345.
- Gauze, C., Bukowski, W. M., Aquan-Assee, J., & Sippola, L. K.(1996). Interactions between family environment and friendship and associations with self-perceived well-being during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7(5), 2201-2216.
- Hartons, J. L., & Power, T. G.(2000) Association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reports for assessing relations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4), 441-450
- Hovey J. D., & King C. A.(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 Jung, N. Y., & Lee, J. S.(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problem of child and child's perception of parents-child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7(4), 61-71.
- Kafka, R. R., & London, P.(1991). Communication in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The influence of parents and friends. *Adolescence*, 26, 587-598.
- Kang, Y. J., & Mun, J. W.(2005). Family related factor's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among Korea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 *Studies on Korean Youth*, 16(1), 283-316.
- Kawash, G., & Kozeluk, L.(1990).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as a function of position within Olson's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8, 189-196.
- Kim, A. K.(2001). 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early adolescents relationships to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esteem,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3), 271-285.
- Kim, Y. H.(1989).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couple relationship,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functi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Y. H.(2001). Mother's involvement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 poor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1), 179-190
- Kim, Y. H., & An, S. M.(2008).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conflict, and adolescents' depression &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2), 1-30.
- Lee, H. S.(2013).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The Korea Contents Studies*, 13(1), 333-341.
- Lee, J. M.(2009).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go-identity, and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5), 1021- 1033.
- Lee, J. Y., & Kim, H. H.(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elf-directed learning, appearance complex,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8), 65-88.
- Lee, J. Y., & Lee, K. A.(2004).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6(2), 262-276.
- Lee, K. S.(2006). *The effects of stress on elementary school*

- children from extracurricular activ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Lee, M. J.(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their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Masselam, V. S., Marcus, R. F., & Stunkard, C. L.(199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functioning, and school performance. *Adolescence*, 25, 725-737.
- Min, H. Y.(1992). The relation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3(1), 112-124.
- Oh, K. J., & Moon, K. J.(2006). Pover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1), 59-76
- Olson, D. H., & Gorall, D. M.(200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Normal family processes*, 3, 514-547.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1), 3-27.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1983). Circumplex model: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1), 69-83.
- Pinsof, W. M. & Lebow, J. L.(2005). A scientific paradigm for family psychology. In: Pinsof W.M., & Lebow J.L. (Eds.), *Family psychology: The art of the science*. N.Y.: Oxford University Press, 3-20.
- Snow, C. E., & Beals, D. E.(2006). Mealtime talk that supports literacy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11, 51-66.
- Steingerg, L.(1990). Interdependency in the family: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S. Feldman & G. Elliot(Eds.), *At the threshold :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ideon, T. M., & Manning, C. K.(2003), Influences on adolescent eating patterns: The importance of family meal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2(5), 365-373.

접수일 : 2013년 03월 14일

심사일 : 2013년 04월 0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29일